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오늘 노동부 발표 6월 고용 소폭 완화... 20만9천개
- Bloomberg: 일시적인 일자리 약세가 연준 정책을 흔들기에 불충분

"

[미국 금융]

- Bloomberg;금리인상 부추기는 강한 경제 때문에 월가 거래자들 흔들

[오일]

- WSJ: 미 오일 호황이 OPEC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켜

[미중 관계]

- WSJ:엘런 장관, 미국은 중국 관련 '승자 독식' 입장 아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대 퇴직'은 끝났는데 근로자 힘은 여전한가?
- WSJ: AI 붐이라고 해서 메모리칩 슬럼프를 깨지는 못한다
- CNBC: 전기차 판매 현대가 GM 눌러...테슬라는 미국 우위
- CNBC:
- CNN Business: 'UPS 파업은 미국 경제의 걸림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Jobs Report Shows Hiring Eased Slightly in June

오늘 노동부 발표 6월 고용 소폭 완화... 20만9천개

- 고용주들이 추가한 고용 숫자는 2만9천개로 약간 경제가 둔화되었다는 신호다.
- 물론 여전히 강한편이지만 올해 초부터 둔화가 확실하다고 오늘 금요일 월간 고용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5월 고용 숫자는 3만6천개로 하향 조정됐다.
- 실업률은 5월 3.7%에서 3.6%로 감소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다. 6월 임금은 작년 대비 4.4% 상승했다.
- 고용이 늘어난 업종은 정부, 헬스, 건축인데 반해 레저, 환대산업은 고용속도가 둔화되었다. 특히 식당이나 유사한 업종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에 머물렀다.

WSJ 기사

Bloomberg: Tentative Weakness in US Jobs Data Won't Be Enough to Sway Fed

일시적인 일자리 약세가 연준 정책을 흔들기에 불충분

- 요지: 블룸버그는 6월에 일자리 창출 건수가 22만5천개로 보았다.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연준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너무 타이트해

금리 인상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 블룸버그 뉴스의 이코노미스트 Stuart Paul는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 자리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고용 속도 추세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지만 연준이 마음을 놓기에는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고 진단했다.
- 그는 그런 근거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은 노동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 Traders Reel as Still-Hot Economy Fuels Rate-Hike Bets

금리인상 부추기는 강한 경제 때문에 월가 거래자들 흔들

- 한마디로 2022년 매도세를 상키시키듯이 주식과 채권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가 빨리 둔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가 계속 달아 오르고 있는 신호 때문에 자금 매니저들은 당황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주식과 채권의 동반 등락 가능성 때문이다.
- 목요일 강한 노동 지표로 연준 긴축 정책이 강화할 것이라는 베팅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월가는 계속 오랫동안 고금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U.S. Oil Boom Blunts OPEC's Pricing Power

미 오일 호황이 OPEC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켜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수출국들의 가격 상승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일 생산량에 기록적인 수준 보이면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올해 4월까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년 전보다 9% 증가했는데, 이는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의 셰일 붐이 정점을 찍을 조짐으로 보여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 이런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관련 오일 기업들의 원유 생산 효율성 향상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가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석유수출국기구의 가격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WSJ 기사

미중 관계

WSJ: Yellen Says U.S. Doesn't Seek 'Winner Take All' Fight With China

옐런 장관, 미국은 중국 관련 '승자 독식' 입장 아니다

- 옐런 미 재무장관은 Li Qing 중국 총리에게 두 경제 강대국 사이의 관계 둔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으로 부터의 경제적인 분리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승자독식' 싸움을 추구하지 않고, 양국 호혜 입장에서 경제 경제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다.
- 그는 또 중국의 민감한 기술 접근에 대한 미국의 제한 노력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The 'Great Resignation' Is Over. Can Workers' Power Endure '대 퇴직'은 끝났는데 근로자 힘은 여전한가?

- 지난 2년간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옮기면서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퇴사의 물결이 있었다.
- 그러나 이제 이런 물결을 막을 내리고 있다.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 비율은 최근 수개월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퇴직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 숙박업 소매업 등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에서는 이직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지 않고 있다. 고용주들이 이들이 이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임금을 인상시키고 근무 여건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이직률이 감소하고 있다.
- 이제는 그 무게 추가 다시 고용주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NYT 기사

WSJ: The AI Boom Isn't Breaking the Memory-Chip Slump—Yet AI 붐이라고 해서 메모리칩 슬럼프를 깨지는 못한다

- 현재의 인공지능 붐은 메모리 칩의 커다란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한국의 거대 반도체 기업조차도 현재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 한마디로 AI 활용이 광범위한 기술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말이다.
- SK 하이닉스도 올해 2분기에 영업 손실 2조 8천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3% 줄어든 6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전 세계 DRAM 매출에서 AI 관련 부분이 올해 16%에서 오는 2025년까지 41% 증가할 것이라고 Citi 분석가들은 예상했다.

WSJ 기사

CNBC: EV sales: Hyundai overtakes GM, but Tesla's U.S. dominance continues

전기차 판매 현대가 GM 눌러... 테슬라 미국 우위는 지속

-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면에서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하다.
-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현대 자동차는 미국내 전기차 판매량에서 GM을 추월했지만 업계 대표 주자인 테슬라에 선두주자를 내주고 있고 2위로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다.
- 바꾸어말해 Motor Intelligence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약 3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이기고 있다.

CNBC 기사

CNBC: Amazon CEO explains how the company will compete against Microsoft, Google in A.I. race

아마존 CEO, "마이크로와 구글과 AI 경쟁한다"

- 아마존 CEO인 Andy Jassy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자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칩과 서비스를 통해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회사가 전폭적으로 AI에 투자할 계획이며, AI 프로그램이 잠재력이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기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 하나로 Amazon Web Services를 꼽았다.

CNBC 기사

CNN Business: The US economy can't function smoothly without UPS. That's why a strike will hurt

'UPS 파업은 미국 경제의 걸림돌'

- UPS는 단순한 대형 운송회사라기 보다 미국 총생산의 6%를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다. 상품의 원활한 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현재 노조와의 계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 34만명이 8월 1일부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와 미국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심각하며 미국 경제가 UPS가 운송할 수 있는 소형 품목의 빠른 배송에 대한 의존도를 무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정보

美 노동시장 과열 '여전'...6월 민간고용, 전망치 2배 이상↑

실업수당 청구 25만건...5월 구인건수 1천만건 하회했지만 '높은 수준' 민간고용 '쇼크'에 2년물 미국채금리 16년만에 최고...10년물도 4% 돌파

지난 1년여 동안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뜨겁다는 고용 관련 지표가 잇따랐다.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6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7천 개 증가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작년 7월 이후 최대폭 증가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 개)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지난달 민간 고용은 5월 증가폭(26만7천 개)을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전년 동월보다도 6.4% 증가했다.

레저·접객업(23만2천 개)과 건설업(9만7천 개), 무역·운수·유틸리티(9만 개)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는 둔화세를 이어갔다.

ADP에 따르면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6.4% 상승해 5월(6.6%)보다 오름폭이 약간 줄었고, 직장을 옮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은 11.2%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다.

기업들의 채용 규모도 여전히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미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5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5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80만 건으로 4월(1천30만 건)보다 49만6천 건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1천만 건)를 하회해 두 달 만에 1천만 건 밑으로 다시 내려갔지만, 지난 3월(975만 건)보다 아직 많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발적 퇴직자 수는 402만 명으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했고, 퇴직률은 2.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

5월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용인하기에는 노동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6월 25일~7월 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보다 1만2천 건 증가해 시장 전망치(24만5천 개)를 살짝 웃돌았다.

반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3천 건 감소한 172만 건으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된다.

미국 노동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잇따른 발표에 주식과 채권 시장은 움츠러들고 있다.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가 7일 발표할 6월 일자리와 실업률 공식 지표가 주목된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오전 장중 한때 5.12%까지 찍어 지난 2007년 6월15일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전날보다 0.1%포인트 이상 올라 4%를 돌파했다.

뉴욕증시의 3대 지수도 오전 10시30분 현재 1.3% 안팎의 큰 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